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에 대한 융복합 연구

성경미¹, 김은정^{2*}

¹경상대학교 간호대학·건강과학연구원 교수, ²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A Convergence Study on Depression of Main Caregiver for Elderly in Korean Nursing Home

Kyung Mi Sung¹, Eun Jeong Kim^{2*}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Doctor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 제공자의 우울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G도에 위치한 5개의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20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확대가족인 경우, 요양시설 입소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입소 결정자가 가족이며 입소비용이 많고, 요양시설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 요양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 경감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본다.

주제어 : 요양시설, 노인, 돌봄, 우울, 융복합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pression of the main caregivers for the elderly in Korea by using a descriptive survey study. A total of two hundred eight participants who admitted at five nursing homes located in G city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igher level in extended family in family typ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cases of less than five years' hospitalization periods or Decision maker of elderly's hospitalization high level burden for expenses among caring related characteristics. They also had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cases of high level burden for expenses. less than 60 minute in commuting time, or non-satisfaction for nursing home service among caring related characteristics. Although we need more evidences through future stud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reducing the depression of the main caregivers for elderly population.

Key Words : Nursing home, Elderly, Caring, Depression, Convergence study

*Corresponding Author : Eun Jeong Kim(6166jin@naver.com)

Received November 20,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Revised December 25, 2019

Published Januar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1].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구원의 감소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2] 가족이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부양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장기간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하는 [3]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차적 책임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의식에서 온전히 노인 돌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4].

가족 내 질환을 가진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며, 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5-7]. 특히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위는 늙고 병든 부모를 버린다는 인식 때문에 정서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오명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다[8]. 특히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자는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생각, 죄스럽고 미안함, 어쩔 수 없는 무력감, 쓸쓸함[5,6]을 표현하고 다른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후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은 주로 시설입소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1,9]. 가족 간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주 돌봄자 혼자서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가족끼리 나눠서 부담해도 공평성과도 관련되며 공평하게 부담해도 부유한 형제는 인식하라는 인식으로[10] 갈등이 더 가중된다.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뒤 입소노인 가족이 느끼는 감정으로는 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 노후의 자신의 모습 일 것 같은 감정어입 등이 있다[5]. 현실적인 문제로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 시켰지만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돌봄 제공자의 역할 변화만 있을 뿐 돌봄 부담으로 인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11]. 실제로 부담감을 경험하는 요양시설 입소노인 가족들의

70%가 죄책감을 느끼며[10], 돌봄 제공자의 역기능적 감정인 죄책감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13,14]. 하지만 가족들은 부모를 직접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직접 돌보는 것이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돌봄 제공자가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했지만 이런 결정이 어쩔 수 없었고[8], 요양시설이 더 편하고 말벗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고 있다[5]. 또한 요양시설 입소가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거나[1],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는 양가감정을 보이고 있다.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 돌봄 제공자는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남이지만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거나[1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늘 불안하고[9], 부모를 버렸다는 괴로움[16]으로 마음이 힘들다고 하였다. 하지만 직접 돌볼 때 보다 요양시설 입소 후 노인과의 관계가 좋아져 즐겁고[9], 노인 스스로 요양시설에 적응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며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8], 돌봄 제공자 또한 돌봄 역할의 균형을 잡고 삶을 재구성하는[16]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 돌봄 문화의 변화에 따라 요양시설을 방문하면서 부모를 보살피는 행위도 현대의 효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가 불효의 행위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새로운 돌봄 환경에서 변화된 형태로 자녀의 돌봄과 효과 계속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6]. 이상과 같이 노인 요양시설은 현대 노인의 돌봄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요양시설 입소노인과 동시에 돌봄 제공자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노인과 주 돌봄자의 긍정적인 관계를 돕고 주 돌봄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주 돌봄자의 우울 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에 위치한 5개 요양시설을 방문한 입소노인 주 돌봄자 중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들이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요양시설 입소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노인의 주 돌봄자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자료, 제외기준은 정신건강문제를 진단받았거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적 관리를 요하는 질환 이외의 심각한 신체장애 등이 있어서 돌봄 이외의 이유로 우울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질병을 가진 대상자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3, 비교 집단 수는 최대 4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96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246부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38부를 제외하고 최종 208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파악된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 12문항과 돌봄 관련 특성 12문항, 그리고 우울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42문항의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동거가족, 직업유무, 월수입, 요양시설 입소자와의 관계,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였으며, 돌봄 관련 특성으로는 노인의 진단명 입소 기간, 입소 이유, 요양비, 방문횟수 등이었다.

2.3.1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의 우울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15]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 4점 척도로 문항별로 '극히 드물다' 0점(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점(일주일 동안 1-2일 이하), '자주 있었다' 2점(일주일 동안 3-4일), '거의 대부분 있었다' 3점(일주일 동안 5-7일)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A대학교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GIRB-A18-Y-0009)과 해당 요양시설 의 허락하에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요양시설을 방문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여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정도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우울 정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돌봄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평균 53.71 ± 8.74 세였으며, 50세 미만 72명(34.6%), 50~59세 82명(39.4%), 60세 이상 54명(26.0%)으로 50대가 많았다. 성별은 남자 79명(38.0%), 여자 129명(62.0%)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 193명(92.8%)이 배우자 없음 15명(7.2%)보다 많았다. 가족형태로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와 거주하는 핵가족으로 186명(89.4%)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115명(55.3%)이었고, 학력은 대졸이 110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 76명(36.5%), 대학원 이상 22명(10.6%)이었다. 직업은 있는 경우는

153명(73.6%)으로 없는 경우 55명(26.4%)보다 많았다.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82명(39.4%), 200~300만원 미만 57명(27.4%), 300만원 이상 69명(33.2%)이었다.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은 주로 자신의 부모 115명(55.3%)이거나 배우자의 부모 60명(28.8%)였고, 배우자인 경우 10명(4.8%)과 기타 친척인 경우가 23명(11.1%)이었다. 입원한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전 거주지는 노인의 자택 131명(63.0%)으로 많았으며, 그 외 병원 36명(17.3%), 돌봄자의 집 41명(19.7%)이었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좋다 62명(29.8%), 보통이다 128명(61.5%), 나쁘다 18명(8.7%)로 본인의 질병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 질병이 없는 경우가 112명(53.8%)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질병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 46명(22.1%), 당뇨병 15명(7.2%), 심혈관질환 17명(8.2%), 뇌혈관질환 5명(2.4%), 관절염 27명(13.0%) 등이었다.

3.2 대상자의 돌봄 관련 특성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질환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 치매 132명(63.5%), 뇌졸중 64명(30.8%), 파킨슨 19명(9.1%), 기타 24명(11.5%)이었다. 입원 기간은 평균 2.94 ± 2.93 년이었으며, 1년 미만 26명

Table 1. Comparison of Depress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Variables	Categories	n	%	Depression		t/F	p	
				Mean	SD			
Age (years) [†] M±SD=53.71±8.74 Range 31-78	<50	72	34.6	2.30	±0.60	0.95	.389	
	<60	82	39.4	2.32	±0.55			
	≥60	54	26.0	2.19	±0.53			
Sex	Male	79	38.0	2.37	±0.57	1.81	.073	
	Female	129	62.0	2.23	±0.55			
Spouse	Yes	193	92.8	2.28	±0.58	-0.59	.560	
	No	15	7.2	2.34	±0.40			
Family type	Nuclear family	186	89.4	2.21	±0.50	2.19	.030	
	Extended family	22	10.6	2.38	±0.52			
Religion	Yes	115	55.3	2.24	±0.59	-1.02	.311	
	No	93	44.7	2.32	±0.54			
Education [†]	≤High school	76	36.5	2.30	±0.52	1.65	.195	
	≤College	110	52.9	2.31	±0.59			
	≥Graduate school	22	10.6	2.07	±0.55			
Job	Yes	153	73.6	2.30	±0.57	0.90	.368	
	No	55	26.4	2.22	±0.54			
Monthly income [†] (10,000 < Won)	< 200	82	39.4	2.30	±0.56	0.06	.947	
	< 300	57	27.4	2.28	±0.57			
	≥300	69	33.2	2.27	±0.58			
Subjects for giving care [†]	Parent	115	55.3	2.29	±0.59	1.24	.295	
	Spouse's parent	60	28.8	2.28	±0.52			
	Spouse	10	4.8	2.52	±0.38			
	Others [‡]	23	11.1	2.12	±0.62			
Elderly's residence before nursing home admission [†]	Elderly's house	131	63.0	2.26	±0.57	0.21	.815	
	Hospital	36	17.3	2.30	±0.61			
	Participant's house	41	19.7	2.32	±0.53			
Health status [†]	Good	62	29.8	2.22	±0.65	0.45	.639	
	Average	128	61.5	2.30	±0.52			
	Bad	18	8.7	2.33	±0.57			
Disease [†] (multiple responses)	No	112	53.8	2.28	±0.52	0.06	.955	
	Yes	Hypertension	46	22.1	2.28			±0.60
		DM	15	7.2				
		Cardiovascular	17	8.2				
		Cerebrovascular	5	2.4				
		Arthritis	27	13.0				
		Others	16	7.7				

†: Scheffe's Test; ‡: grandchildren, relatives etc.

Table 2. Comparison of Depression according Participants' Caring related Characteristics (N=208)

Variables	Categories	n	%	Depression	t/F	p
				Mean±SD		
Elderly's disease [†] (multiple responses)	Dementia	132	63.5			
	Stroke	64	30.8			
	Parkinson	19	9.1			
	Others	24	11.5			
Hospitalization periods [†] M±SD = 2.94±2.93 Range= 0.25-21.0	<1 year ^a	26	12.5	2.32±.60	2.59 b)c	.032
	<5 year ^b	144	69.2	2.39±.55		
	≥5 year ^c	38	18.3	2.18±.54		
Reasons for hospitalization (multiple responses)	No family to care	90	43.3			
	Worsening of elderly's health	123	59.1			
	Family conflict	18	8.7			
	Worsening of my health	19	9.1			
	My working life	38	18.3			
	Others	1	.5			
Decision maker of elderly's hospitalization [†]	Elderly ^a	13	6.3	2.46±.81	4.60 c)b	.009
	Participant ^b	57	27.4	2.21±.53		
	Family member ^c	138	66.3	2.57±.51		
Monthly admission fee [†] (10,000 won) M±SD= 78.00±42.86 Range= 30-130	<50	23	11.1	2.10±.51	1.92	.127
	<70	77	37.0	2.33±.54		
	<100	57	27.4	2.36±.49		
	≥100	51	24.5	2.18±.67		
A payer for admission fee [†]	Elderly	10	4.8	2.47±.60	.71	.493
	Participant	77	37.0	2.29±.54		
	Family members	121	58.2	2.26±.58		
Burden of expenses [†]	Very ^a	156	75.0	2.35±.56	5.41 a)b,c	.005
	Moderate ^b	40	19.2	2.06±.53		
	No ^c	12	5.8	2.07±.53		
Visiting frequency [†] (per month) M±SD = 5.28±6.68 Range= 1-30	≤1	31	14.9	2.24±.58	.38	.767
	≤3	85	40.9	2.33±.56		
	≤5	47	22.6	2.26±.57		
	≥6	45	21.6	2.24±.57		
Visiting duration [†] (hour per each visiting) M±SD = 1.31±2.33 Range= 0.33-4	<1	71	34.1	2.32±.55	1.69	.187
	<2	102	49.0	2.31±.55		
	≥2	35	16.8	2.12±.63		
Commuting time [†] (Minute) M±SD = 36.46±27.1 Range= 15-130	<30 ^a	81	38.9	2.30±.54	3.93 b)c	.021
	<60 ^b	86	41.3	2.36±.54		
	≥60 ^c	41	19.7	2.07±.62		
Previous experience for elderly caring	No	175	84.1	2.29±.56	.64	.522
	Yes	33	15.9	2.22±.58		
Satisfaction for nursing home service [†]	Yes ^a	107	51.4	2.12±.53	14.47 c)a,b	<.001
	Moderate ^b	75	36.1	2.36±.55		
	No ^c	26	12.5	2.71±.49		

†: Scheffe's Test

(12.5%), 5년 미만 144명(69.5%), 5년 이상 38명(18.3%)이었다. 요양시설 입소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 돌봄 가족이 없어서 90명(43.3%), 노인의 건강악화 123명(59.1%), 가족갈등 18명(8.7%), 돌봄자 본인의 건강악화 19명(9.1%), 돌봄자 본인의 직장생활 38명(18.3%), 기타 1명(.5%)이었다. 입소 결정자는 환자 본인 13명(6.3%), 주 돌봄자 57명(27.4%), 그리고 가족

원 133명(66.3%)이었다. 요양비는 평균 78.00±42.86만원 이었으며, 50만원 미만 23명(11.1%), 50~70만원 미만 77명(37.0%), 70~100만원 미만 57명(27.4%), 100만원이상 51명(24.5%)으로 50~7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비 지불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본인 10명(4.8%), 주 돌봄자 77명(37.0%), 가족들이 나누어서 부담 121명(58.2%)으로

요양비는 가족끼리 나누어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양비 부담정도는 부담된다 156명(75.0%), 그제 그렇다 40명(19.2%), 부담이 안된다 12명(5.8%)로 대다수가 요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방문횟수는 한 달 평균 5.28±6.68회로 한 달에 1번 31명(14.9%), 한 달에 2~3번 85명(40.9%), 한 달에 4~5번 47명(22.6%), 한 달에 6번 이상 45명(21.6%)이었다. 머무는 시간은 평균 1.31±2.33시간으로 1시간 미만 71명(34.1%), 1~2시간 미만 102명(49.0%), 2시간 이상 35명(16.8%)이었다. 요양원까지 거리는 평균 36.46±27.1분으로, 30분 미만 81명(38.9%), 30~60분 미만 86명(41.3%), 60분 이상 41명(19.7%)이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돌봄 경험은 처음 175명(84.1%), 두 번째 이상 33명(15.9%)으로 대부분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처음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서비스 만족여부는 만족한다 107명(51.4%), 그제 그렇다 75명(36.1%), 불만이다 26명(12.5%)으로 Table 1과 같다. 추가로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26명의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 열악한 환경 21명(80.8%), 의료수준 16명(61.5%), 친절도 6명(23.1%), 정보제공 2명(7.7%)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Table 2와 같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가족형태에서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9, p=.030$). 그 외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다음으로 돌봄 관련 특성에서는 요양시설 입소기간이 5년 미만과 5년 이상에서 우울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F=5.59, p=.032$), 요양시설 입소 결정자가 가족인 경우가 연구대상자 본인인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높았다($F=4.60, p=.009$). 또한 요양비 부담정도가 높거나($F=5.41, p=.005$), 요양시설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가까울 때($F=3.93, p=.021$), 그리고 요양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때($F=14.47, p<.001$)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3.4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 특성 중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양비 부담정도(부담이 안된다 기준), 요양시설 거리(60분 이상 기준), 요양서비스 만족도(만족 기준) 등 3개의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으며 변인들의 영향력은 Table 3과 같다. 분석전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빈-왓슨 통계량을 구한 결과 2.028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276~.901로 .10 이상의 값으로 나왔고, VIF는 1.110~3.618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결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요양시설과 거리 60분 미만($\beta=.21, p=.017$), 30~60분($\beta=.29, p=.001$), 서비스만

Table 3. predictors of depression

(N=208)

Variable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	1.76	.16		11.04	<.001		
Burden of expenses							
Very	.20	.16	.15	1.25	.212	.276	3.618
Moderate	-.06	.17	-.04	-.36	.721	.277	3.610
Commuting time(minute)							
<30	.24	.10	.21	2.40	.017	.536	1.864
<60	.33	.10	.29	3.37	.001	.536	1.864
Satisfaction for nursing home service							
Moderate	.22	.08	.19	2.84	.005	.894	1.119
No	.56	.11	.33	4.97	<.001	.901	1.110

Durbin-Watson=2.028, F=8.35, p<.001, R²=.200, Adj-R²=.176
Tolerance=.276-.901, VIF=1.110-3.618

족도인 그저그렇다($\beta=.19$, $p=.005$)와 불만족($\beta=.33$, $p<.001$)순이었다. 즉, 거리가 60분 이상이 비해 30분 미만과 30~60분 미만일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만족에 비해 그저그렇다와 불만족일수록 우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17.6% ($F=8.35$, $p<.001$, $R^2=.200$, $Adj-R^2=.176$)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자의 우울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71세로 50대 중 초반이었으며, 여자가 62.0%로 많았고, 대부분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193명, 92.8%). 가족형태는 배우자나 자녀와 거주하는 핵가족이 대부분(89.4%)이었으며, 그 외에는 부모나 친척들과 사는 확대가족이었다. 대상자들은 대졸이나 대학원이상이 62.9%로 많았으며, 73.6%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월수입도 200만원 이상이 절반이상(60.6%)이나 되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연구대상자의 부모(84.1%)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주로 요양시설 입소 전에 노인의 자택(63.0%)이나 병원 (17.3%)에 있었고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모시다가 입소한 경우는 20% 미만이었다. 돌봄 관련 특성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63.5%가 치매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도 뇌졸중이나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이유는 노인의 건강악화가 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3.3%가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어서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대부분 핵가족 형태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요양비 부담은 대부분의 관련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75%가 매우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16,17]. 또한 대상자들은 한달에 요양시설 노인을 평균 5회이상 방문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간접비용도 추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가족형태에서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가족형태에 따른 우울정도를 연구한 문헌이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후 돌봄자의 부담은 다소 감소되지만 죄책감은 높아졌다는 연구 보고[11]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유대감이나 부양에 대한 책임감 등을 비교하여 본 연구결과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 전체나 50대 전후반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6,20,21], 본 연구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 이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주 돌봄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희정의 연구[22]에서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노인 돌봄을 힘들어 했다는 것과는 간접적으로 불일치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대상자 중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으로 좋은 경우가 91.3%로 많았으므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자의 돌봄 관련 특성에서 우울점수에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기간으로 5년 이상보다 5년 미만인 경우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소진, 희망 상실 등 감정적인 실망감과 부담감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쳐 우울이 심해진다는 연구결과[23,24]를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5년 정도의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감정이 무뎌지거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일부 시사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하게 Motenko (1989)의 연구결과[25]에서 돌봄 제공자의 경험 중 좌절감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 입소 결정자가 가족인 경우가 연구대상자 본인인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노인의 의사를 배제한 타의에 의한 입소 결정으로 노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뿐만 아니라 사위와 손주들도 노인의 돌봄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울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26,27]. 요양시설 입소 결정 시 노인을 배제한 결정은 주 돌봄자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며 이는 우울에 중요한 예측요인의 결과일 수 있다[28]. 그 외

에도 연구대상자가 요양비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낄 경우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은 여러 선행문헌과 일치하는 결과로 추후에는 가족 경제 상태나 수입정도와 연계하여 직접 및 간접영향의 크기를 규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연구가 대상자를 이해하고 증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요양시설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가까울 때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돌봄 제공자의 경험을 탐색한 일 연구[29]에서 가까운 곳에 모실 경우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형제자매들 보다 역할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점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요양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1,30-32].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은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요양시설 입소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요양시설 입소 결정자가 가족인 경우, 요양비 부담정도가 높은 경우, 요양시설과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가까운 경우, 요양시설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주 돌봄자에 대한 우울사정 시 우울의 차이를 선별한 후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간호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요양시설의 입소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돌봄의 형태임을 인정하고 주 돌봄 제공자의 우울이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주 돌봄 제공자를 편의추출하여 실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확대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반복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돌봄 제공자의 요양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과정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증재방법을 모색해야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의 우울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가족의 형태에서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유의하게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 점수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돌봄 관련 특성에서는 요양시설 입소 기간이 5년 미만과 5년 이상에서 우울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5년 미만의 대상자가 5년 이상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 결정자가 가족인 경우가 연구대상자 본인인 경우보다, 그리고 요양비 정도가 높거나 요양시설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가까운 경우, 요양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돌봄자에게 나타나는 우울은 주 돌봄자의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이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과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요양시설 입소노인 주 돌봄자들에게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초기에 우울 감소를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때 본 연구결과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정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할 때에도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보길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W. Hong., & H. M. Soon. (2007). Family Caregivers' Experience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ir Elder Family Memb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5), 724-735. DOI : 10.4040/jkan.2007.37.5.724
- [2] C. J. Park. (2015). Determinants of Long Term Care Service types of Family Caregiv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0, 31-51. DOI : 10.21194/kjgsw..70.201512.31
- [3] Y. H. Park., S. J. Yu., & M. S. Song. (1999). Caregiver burden of families with Stroke Patients and their Needs for Support Group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2(2), 384-395.
- [4] J. G. Lim., E. J. Hong., & J. Y. Lee. (2010). Comparis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Elderly C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4, 255-275.
- [5] W. H. Kim., C. Y. Park., J. J. Y., & I. M. Kang. (2003). A Qualitative Analysis on Familial Caregivers' Burden in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13(1), 1-22. DOI : 10.4332/KJHPA.2003.13.1.001
- [6] J. Y. Lee., & Y. A. Kim. (2009). Relationship between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aregiver.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 41-48.
- [7] S. H. Lee. (2010). Feeling of Family Caregivers' Burden with Elder In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2(1), 69-92.
- [8] Y. J. Lee., J. H. Kim., & K. B. Kim. (2000). An Ethnography on Stigma of Families Having Old People Admitted to Nursing Hom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3), 1005-1020.
- [9] J. H. Seomun., & Y. J. Jung. (2011). A Qualitative Study on Caregivers' Burden Experiences for the Long-term Care Qualified Elderly. *Journal of Social Science*, 22(4), 3-30.
- [10] H. J. Yoo. (2013). A Study on the Conflict Among Siblings Regarding the Long-term Care of Older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0, 63-91
DOI : 10.16975/kjfs.w.2013..40.003
- [11] M. S. Lee.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giving burden of the elderly before and after entering nursing home. *Korean Journal of Care Work*, 11, 27-43.
- [12] B. E. Barba., & T. Anita. (2001).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oward Aging, Caregiving, and Nursing Home Placement.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7, 44-52.
DOI : 10.3928/0098-9134-20010801-12
- [13] G. H. Youn. (1998). Cultura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Burden and Caregiving Obligation of Primary Caregivers for Senile Dementia Pati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8(1), 75-90.
- [14] E. G. Yun. (2010). A research on the how caregiving burden for the frail elderly effect on caregiver's guilt : Comparing between home-care elderly and nursing hom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7, 289-308.
DOI : 10.21194/kjgsw..47.201003.289
- [15] K. S. Kim. (2017). Qualitative Case Study on Care Problem and Function of Family of Demente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9(2), 49-59.
- [16] S. H. Kwon., & Y. S. Tae. (2012). The Experience of Adult Korean Children Caring for Parents Institutionalized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1), 41-54.
DOI : 10.4040/jkan.2014.44.1.41.
- [17] K. K. Chon., S. C., Choi., & B. C. Yong.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1), 59-76.
- [18] G. J. Park. (2005). A Study on People's Burden of Nursing Their Elderly Family Members and Their Hospitalization into Nursing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Yonsei. Seoul. Korea.
- [19] E. J. Han., R. I. Hwang., S. Y. Park., & J. S. Lee. (2019). Comparison of caregiving burdens among family members by the type of benefits in long-term care. *Korea Social Policy Review*, 28(3), 93-116
DOI : 10.17000/kspr.26.3.201909.93
- [20] M. Fitting., P. Robins., M. J. Lucas., & J. Eastham. (1986).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 A comparison of husbands and wives. *The Gerontologist*, 26(3), 246-252.
DOI : 10.1093/geront/26.3.248
- [21] J. Y. Lee. (2005).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scale of the Korean long term care hospital elderly inpati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22] H. J. Ko. (2011) Factors Determining the Main Caregiver's Depression in Long Term Care Insurance-Comparison Based on Long Term Care Facility Us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yongji, Seoul. Korea.
- [23] Y. J. Kim., & P. S. Lee. (1999). A Study on the Burdens and Depressive Reactions on Families who Cared for Patients Suffering from senile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4), 766-779.
DOI : 10.4040/jkan.1999.29.4.766
- [24] F. O'Reilly., F. Finnan., S. Allwright., G. D. Smith., & B. Y. Shlomo. (1996). The effects of caring for a spouse with Parkinson's disease on social,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6, 507-512.
- [25] A. K. Motenko. (1989). The frustrations, gratification and well-being of 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9(2), 166-196.
DOI : 10.1093/geront/29.2.166
- [26] J. Brown. (2012). The most difficult decision: Dementia and the move into residential aged care (Discussion Paper No. 5). North Ryde, NSW: Alzheimer's Australia NSW.
- [27] J. K. Goh., I. O. Hwang., & H. Y. Oh. (2009). The experiences of the newly admitted elderly residents in nursing hom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477-488.
- [28] Y. S. Young., & Y. R. Tak. (2014). Feelings of Guilt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after Nursing Home Placement fo Older Adults. *Journal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8(3), 276-287.
DOI : 10.17079/jkgn.2014.16.3.276
- [29] E. J. Kim., & K. M. Sung. An Integrated Review on Main Caregiver's Burden of Elderly in Korean Nursing Hom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267-277.
DOI : 10.14400/JDC.2019.17.6.267
- [30] S. H. Mo., S. Y. Choi. (2013). Changes in Caregiving Burden of Families After Using Long-term Care Servic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40, 7-31.
- [31] S. J. Han., S. Y. Lee., J. Y. Kim., & H. S.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Caregiver Burden for Patients with Dementia: A Literature Review.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18(3), 242-254.
DOI : 10.17079/jkgn.2014.16.3.242
- [32] J. Hennings., K. Froggatt., & S. Payne. (2013). Spouse caregivers of people with advanced dementia in nursing homes: A longitudinal narrative study.

Palliative Medicine, 27(2), 683-691.
DOI : 10.17079/jkgn.2014.16.3.276

성 경 미(Kyung Mi Sung)

[정회원]



- 1992년 9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정신건강, 조현병,

양육스트레스

· E-Mail : sung@gnu.ac.kr

김 은 정(Eun Jeo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영양시설 돌봄 부담, 뇌졸중
- E-Mail : 6166jin@naver.com